

# 베트남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김현재\*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 및 결혼이민 현황
- IV. 배경과 원인
- V. 결론

본 논문은 2000년대 초부터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를 다룬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적응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 배경과 원인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증가의 배경과 원인을 첫째, 한국 남성이 대만 남성을 대체하는 베트남 여성의 새로운 국제결혼대상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최근 메콩델타 지역 여성들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 급증세, 셋째, 베트남 내 한류현상에 따른 한국 남성에 대한 베트남 여성의 환상과 호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그로부터 한국 내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다수가 베트남 남부지역 출신이며, 학력이 낮은 특성을 도출해 냄으로써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첫째, 농촌지역으로의 이주를 권장하고, 둘째, 낮은 학력에 따른 별도의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며, 셋째, 경제적 적응을 높이기 위한 소득지원 및 노동정책 등의 마련 등, 정부의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귀화·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어: 국제결혼, 결혼이민자, 베트남 여성, 메콩델타

\* 영산대학교 아시아비즈니스학과 초빙교수

## 1. 서론

1990년대 중반이후 급증하고 있는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에 있어서 특징은 한국에 비해 경제력이 낮은 국가 출신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다. 특히, 한국 내 결혼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 출신의 한국인 남성이 경제력이 약한 아시아권 국가 출신 여성과 결혼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남성의 외국인 아내의 출신 국가는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과 구소련 등으로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여성은 2003년부터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에서 중국 여성 다음으로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베트남 여성은 2005년부터 농림어업 종사 한국 남성의 외국 출신 여성 배우자 중 과반수가 넘는 구성비를 차지하는 등, 인구부족,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농촌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확실히 잡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sup>1)</sup>의 출신 국가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들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 배경과 원인도 경제적, 종교적, 애정적 요인 등에 기인하는 등 점차 다양화 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출신 국가별 결혼 배경과 원인 등의 배출요인은 물론, 이들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한국사회에 적

---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란 용어는 '국제결혼 이주남성'을 대립 쌍으로 상정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결혼이민자'라는 국제적 용례를 따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설동훈 외, 2005)는 지적에 따라, 그리고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 즉, 결혼이주 (marriage migration)가 곧바로 국적 취득과 같은 '이민'의 성격으로 이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하는 대다수 외국 여성의 궁극적 목적이 한국국적 취득을 통한 실질적인 한국으로의 이민인 사실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결혼 이민',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그리고 결혼하고자하는 베트남 여성의 특성과 이들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 배경, 원인 등 배출요인을 고찰하여 밝혀냄으로써 한국정부와 사회 단체들이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과 배출요인에 적합한 귀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참고자료로서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해당 양국가인 베트남과 한국에서 발행된 참고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종합, 분석하고 베트남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베트남 현지인 연구자 등으로부터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의 특성과 배출요인을 청취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문헌자료의 종합, 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한 서술적 방법을 취한다.

이 글의 구성은 2장에서 국내에서 수행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현황을 한국 통계청 자료 등의 제시를 통하여 설명하고 그 추이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의 배경과 원인을 첫째, 베트남 여성의 대만 남성과의 결혼감소추세, 둘째, 메콩델타 출신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급증추세, 셋째, 베트남 내 한류의 확산 등 베트남 내 세 가지 사회문제 및 현상에서 고찰,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의 원인을 재점검하고 그로부터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도출하여 내고, 그 도출한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사회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귀화·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 II. 선행 연구 검토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을 통한 한국으로의 이주는 1990년대 들어서 아시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feminized migration)' 추세 속에서 2000년부터 급증하였기 때문에 그 역사가 짧다. 이는 한국 통계청의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통계에서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 건수가 2000년도 95건에서부터 기재되기 시작한 것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에 관한 연구 역시 2000년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증가 현상에 따라 비로소 수행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2003년 이전까지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에 관한 연구는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 대상에서 주목받을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03년 이전까지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에 관한 연구는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건수가 전체 외국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결혼 건수 중, 중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건수 다음으로 많은 2위를 점하게 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통한 김민정 등의 연구(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서울 및 근교에 거주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각 2명, 총 4명의 사례를 통하여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내 이주 및 결혼의 동기, 자원 획득과 통제, 관계망 관리와 가족경계의 협상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앙정부에서는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간 국제결혼에 관여하는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의 현지실태조사(고현웅·김정선·김재원·소라미, 2006)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의 전국적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4년 12월~2005년 6월 기간 중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설동훈 등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중 945가족의 조사·분석 및 여성 결혼이민자 27명의 심층면접을 통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전국적 실태를 밝혀내었다(설동훈 외, 2005). 이 보고서에서는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57명의 조사와 7명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한국 내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실태를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다.

그 이후, 설동훈, 윤홍식은 “여성 결혼이민자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을 좀더 심층 분석한 “국내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을 발표하였다(설동훈·윤홍식, 2005). 이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 및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경제적 적응성의 상이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집락분석(cluster analysis)과 다차원척도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을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농촌, 도시거주자 모두 경제적 적응은 우수하지만, 사회적 적응은 매우 낮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이유가 이들의 중학교 졸업 수준에 미달하는 낮은 학습능력으로 인한 한국어 구사능력 부족에 있다고 보았다.

그 밖에 김현미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남성과 외국여성간 국제결혼의 문제를 다루었다(김현미, 2006). 이 논문은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결혼 이주체제를 한국의 행정주도형 국제결혼, 베트남 정부의 개혁·개방과 여성이주로 구분하여 그 원인과 이유를 분석해 내고, 국제결혼 중개시스템을 통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다층적인 권력을 성별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내 거주 베트남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이 베트남에서 ‘딸을 외국인과 결혼 시키는 것’이 가족

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하나의 전략으로 채택되고, 외국인과의 결혼이 '대단한 성공(a big success story)'으로 화자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계층의 사람들임을 밝혀내었다.

한건수는 전북의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2명을 포함한 8개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총 19명을 면접하여 이들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한건수, 2006). 최근에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에 관한 두 편의 석사학위 논문(Ha Minh Thanh, 2005; 이태옥, 2006)도 발표되는 등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문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행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대부분 한국 내 거주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에 국한되어 있는 점이다. 현재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한국 내 거주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문화, 사회, 경제적 적응과정에서 겪는 문제점들을 다루거나,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특성과 배출요인을 단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둘째,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문제를 보는 베트남 현지의 시각이 거의 배제되어 있는 점이다. 이는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의 참고문헌, 참고자료 중 베트남 현지에서 발행된 자료가 전무한 데서 알 수 있다.

전술한 두 문제는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실질적 특성과 배출요인을 정작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인 베트남에서는 찾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술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현지인 연구자의 의견청취, 현지 발행 문헌,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고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을 보는

의 전국적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4년 12월~2005년 6월 기간 중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설동훈 등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중 945가족의 조사·분석 및 여성 결혼이민자 27명의 심층면접을 통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전국적 실태를 밝혀내었다(설동훈 외, 2005). 이 보고서에서는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57명의 조사와 7명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한국 내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실태를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다.

그 이후, 설동훈, 윤홍식은 “여성 결혼이민자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을 좀더 심층 분석한 “국내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을 발표하였다(설동훈·윤홍식, 2005). 이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 및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경제적 적응성의 상이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집락분석(cluster analysis)과 다차원척도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을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농촌, 도시거주자 모두 경제적 적응은 우수하지만, 사회적 적응은 매우 낮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이유가 이들의 중학교 졸업 수준에 미달하는 낮은 학습능력으로 인한 한국어 구사능력 부족에 있다고 보았다.

그 밖에 김현미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남성과 외국여성간 국제결혼의 문제를 다루었다(김현미, 2006). 이 논문은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결혼 이주체제를 한국의 행정주도형 국제결혼, 베트남 정부의 개혁·개방과 여성이주로 구분하여 그 원인과 이유를 분석해 내고, 국제결혼 중개시스템을 통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다층적인 권력을 성별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내 거주 베트남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이 베트남에서 ‘딸을 외국인과 결혼 시키는 것’이 가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건수는 2002년까지 일본, 필리핀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건수보다 적었으나 2003년부터는 결혼 건수에서 중국 여성에 이어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증가율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여타 외국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 배우자중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여성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전체 외국여성 배우자의 과반수인 60~70%대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중국 여성 배우자 중 과반수가 조선족 동포인 점<sup>2)</sup>을 감안하면 실제 이민족으로서 중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의 수적 격차는 〈표 1〉에서보다 작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2003년부터 한국 남성과 중국 여성의 결혼 건수 증가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배우자와의 결혼 건수 증가율은 75.5~194.7%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남성과의 결혼 건수에서 중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간 격차는 점차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별 체류현황(2005. 12) (단위: 건, %)

출신국	인원수	출신국	인원수
재중동포	27,717(41.6)	태국	1,447(2.2)
중국	13,401(20.1)	몽골	1,270(1.9)
베트남	7,426(11.1)	러시아	923(1.4)
일본	7,145(10.7)	우즈베키스탄	896(1.4)
필리핀	3,811(5.7)	기타	2,623(3.9)

출처: 법무부, 『2005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006)

2) 한국 남성과 결혼한 전체 중국 여성 배우자 43,316명중 조선족은 31,739명(73.3%), 그 외 중국한국인은 11,577명(26.7%)이다(설동훈 외, 2005:4).

일례로 2006년 4월26일 법무부 발표 자료 <표 2>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한국 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는 총 66,659명으로 이들을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중 중국 출신 조선족 동포가 27,717명(41.6%)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한족은 13,401명(20.1%), 베트남 출신 여성은 7,426명(11.1%)이었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민자 중 조선족 동포를 제외한 이민족으로서 중국 한족 여성과 베트남 여성의 격차는 5,975명에 불과하였다.

한편,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에 있어서 특이점은 한국 내 농어촌지역의 국제결혼 중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한 해, 한국 내 농림어업 종사자 남성의 총 결혼 건수는 총 8,027건이었는데, 이 중 국제결혼은 전체의 35.9%인 2,885건으로 한국의 농림어업 종사자 남성 3명중 1명 이상이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농림어업 종사자 남성과 혼인한 외국여성의 국적별 결혼 건수 (단위: 건, %)

구분	2004년					2005년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기타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기타
건수	1,814	560	879	195	180	2,885	1,535	984	198	168
비율	100.0	30.9	48.5	10.7	9.9	100.0	53.2	34.1	6.9	5.8

출처: 한국 통계청, 『인구동태·외국인과의 혼인·이혼통계』 (2006)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한해, 농림어업 종사자 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 건수는 전년 2004년 1,814건에 비해 59%, 1,071건 증가하였는데, 특히,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은 전년 2004년 560건에서 1,535건으로 급증하면서 2005년 한해 전체 농림어업 종사자 남성의 국제결혼 건수 2,885건의 과반수를 넘어서는 등, 국제결혼을 하는 농림어업 종사자 남성 2명 중 1명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최근 한국 통계청의 농림어업자의 결혼 현황 및 각 지자체의 조사 자료에 의하여 2005년 12월말 현재 농촌 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 수를 14,000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3〉은 국제결혼 가정이 이제 한국 내 농어촌의 새로운 가정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중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 가정이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2005)의 국제결혼 가정의 가족 유형에 대한 조사결과,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내 가족 유형은 과반수인 51.6%가 시부모와 함께 사는 확대가족 형태로, 여타 국가출신 여성이민자의 가족 유형 중 확대가족 형태가 차지하는 구성비와의 비교에서 가장 높았다.

#### IV. 배경과 원인

한국에서는 사회 전체의 고학력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추세로 인한 결혼연령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만혼(晩婚)과 독신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 남성이 국내결혼 시장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교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 출신의 한국 남성이 경제력이 약한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출신 여성과 결혼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베트남 여성은 한국인과 외모적, 문화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역사적 친숙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한국 남성이 결혼 상대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이윤을 추구하는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의 개입은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증가 추세의 주요 배경과 원인이 베트남의 개혁·개방이후 도시와 농촌 간 경제격차의 심화로 인한 농촌지역 남성의 도시로의 이주증가에 따른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의 최대 농촌지역인 남부 메콩델타 지역의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1. 도시와 농촌간 경제격차의 심화

도이머이 이후, 약 20년간 베트남의 꾸준한 경제성장은 베트남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베트남 공업부(Ministry of Industry)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은 1990년 210달러에서 2005년 640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베트남의 빈곤율은 1990년 60%에서 2002년 32%로 약 2배 감소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베트남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지역간 경제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 경제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74%가 베트남 전체 인구의 15%만이 거주하고 있는 5개의 도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인구의 85%가 거주하는 여타 지역에 대한 FDI는 26%에 불과한 실정을 통하여서도 엿볼 수 있다(손승호, 2005: 32). 이와 같은 FDI의 도시집중현상은 외국인 기업들이 투자대상지역으로 대규모 시장이 존재하고 제반 사회간접자본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FDI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는 농촌지역과 도시와의 경제격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베트남 통계청의 “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에 따라

면, 2001년~2002년 기간 중 베트남의 도시주민 1인당 한달평균 소득은 622,000동, 농촌주민 1인당 한달평균소득은 275,000동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주민 1인당 한달평균소득이 약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Thu nhap "giau"- "ngheo"~). 특히, 베트남의 최대 경제도시인 호찌민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베트남 전체 평균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수준 상위 10%와 하위 10%를 각각 비교할 때, 소득격차는 1996년 10.6배, 1999년 12배, 2002년 12.5배, 2004년 13.5배로 도시와 농촌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평균 직장 근무시간은 도시주민이 40.5시간, 농촌주민이 30.6시간으로 농촌주민이 도시주민보다 약 10시간 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에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과 높은 실업률을 반영하고 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발표에 따르면 2001년~2002년 기간 중, 1인당 한달평균 생활비는 도시가 461,000동, 농촌이 211,000동으로 약 2.2배의 격차를 보였다. 상위 10%의 생활비지출에 있어서, 의료비용, 교육비용, 주거비용의 지출은 하위 10%에 비해 각각 4배, 6배, 8배 많았으며 오락비용은 무려 9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와 농촌간 삶의 질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주민의 1인당 연간 평균 교육비용은 약 126만동으로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평균 교육비용보다 약 3배 많았으며, 소득수준 상위 10%의 1인당 연간평균 교육비용은 약 142만동으로 하위 10%의 1인당 평균 연간 교육비용보다 약 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도시와 농촌의 주민간 교육비용의 격차는 도시와 농촌의 주민간 교육수준의 격차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임금수준의 격차를 반영하고 있다. “2005년 베트남 임금 현황조사(Vietnam Salary Survey 2005)”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교육수준은 임금수준을 결정하

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교육수준은 베트남인의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승진과 경력개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술자격증이 있는 근로자는 고졸자보다 42% 임금이 높았고,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술자격증 보유자보다 51%가 높았으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전문대학 졸업자보다 10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hu nhap "giau"- "ngheo"~). 따라서 교육 비용과 교육수준의 격차에 기인한 도시와 농촌지역간 경제적 격차와 빈부 격차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 내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평균 교육연수는 8~10년 정도로 가장 낮기 때문에 학습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한국어 구사능력 등 의사소통 능력은 여타 국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중 가장 뒤떨어지며 이로 인하여 자조단체의 참여 역시 가장 저조하고 사회적 적응도 매우 낮다(설동훈, 윤희식, 2005). 이는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생활수준이 낮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다. 최근 베트남에서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 최대 농촌지역인 남부 메콩델타 지역<sup>3)</sup>은 베트남 내 문맹률이 가장 높고 대학 졸업자 비율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에 나서고 있는 18~25세 연령대 여성의 대부분은 초졸, 중졸 학력이 보편적이며 간혹 문맹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Dua nhau lay chong ~).

메콩델타 지역은 교통, 전기, 통신, 의료, 교육 등의 인프라 사정이 매우 열악하며 실업인구가 많고 노동생산력이 낮고 노동인력의

---

3) 메콩델타 지역의 13개성은 안장(An Giang), 벤째(Ben Tre), 박리에우(Bac Lieu), 켄터(Can Tho), 까마우(Ca Mau), 동탑(Dong Thap), 허우장(Hau Giang), 끼엔장(Kien Giang), 롱안(Long An), 속짱(Soc Trang), 띠엔장(Tien Giang), 짜빈(Tra Vinh), 빈롱(Vinh Long)을 포함한다.

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이다. 이 지역주민의 평균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하루 평균 노동임금은 15,000동에서 20,000동<sup>4)</sup>으로 매우 낮 으며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지역전체 극빈가구의 비율은 1993년 47.1%에서 2002년 23.4%로 줄어들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여전히 극빈가구가 전체가구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Tran Thi Kim Xuyen, 2004: 24, 68).

베트남 국립호찌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 한해, 대만 남성과 결혼한 전체 베트남 여성 11,358 명중 메콩델타 지역출신 여성은 7,285명으로 전체의 64.14%의 구성 비를 차지하였다. 메콩델타 지역에서 대만 남성과 결혼한 딸이 있는 가구의 소득은 결혼당시 동지역내 가구의 평균소득 수준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전체의 19.8%, 약간 낮은 경우가 41.1%로 대만 남성과 딸이 결혼할 당시의 가구 중 60.9%가 가난한 농촌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출신 여성들의 대만 남성과의 결혼 이유는 “본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가 46.7%, “물질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26.7%, “현재의 빈곤 환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가 8.8%로 경제적 이유가 전체의 82.2%를 차지하였으며, 결혼 이유가 “남편을 사랑해서”는 17.8%에 불과하였다. 한편, 대만 남성과 결혼한 딸들 이 지역 가정의 딸의 결혼당시와 그 이후의 경제상황을 조사한 결과, 결혼 당시 전체 가정 중 전술한 19.8%와 41.1%의 매우 빈곤한 가정과 빈곤한 가정의 비율이 모두 딸의 결혼이후 1.1%와 8.2%(Tran Thi Kim Xuyen, 2004: 68, 71, 77)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 지역 여성의 대만 남성과의 결혼이 실효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4) 환율 1USD=16,000VND 2006년 12월 현재.

이처럼 메콩델타 지역에서는 이미 대만 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이 지역 출신 여성이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국제결혼은 자녀를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동시에 가족부양의 문제까지 해결하여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베트남의 남부지역 출신 여성과 대만 남성의 결혼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베트남에서 발생한 전체 베트남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중 86.2%의 구성비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메콩델타 출신 여성은 전체 남부지역 출신 여성 중 89%(90% dau Viet ~)의 구성비를 차지한 사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대만 남성과의 국제결혼은 이웃과 마을전체 그리고 이웃마을로까지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싸 다이로안(대만마을-Xa Dai Loan:대만인 사위를 둔 가정들의 마을이라는 뜻)'들이 생겨나는 등, 메콩델타 지역은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베트남의 도시와 농촌지역간 경제적 격차와 빈부격차의 심화는 결국, 베트남 농촌지역여성 중 상당수가 국제결혼을 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남성이 이들의 새로운 국제결혼 대상이 되고 있다.

## 2. 베트남 남부 농촌지역 인구의 성별 불균형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농촌지역의 젊은 남성들은 취업 또는 유학을 위하여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근 도시로 이주한 농촌지역 출신 남성들은 거주지역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베트남의 특성상 도시여성들과 결혼해야만 안정적으로 도시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

은 고향인 농촌에 내려가지 않고 도시에서 배우자를 구하게 된다. 따라서 농촌지역에는 여성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남성'이 부족하게 되는(김현미, 2006: 21) 성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표 4〉 베트남의 지역별 인구 (단위: 천명, %)

연도	지역별 인구					
	도 시	구성비	증가율	농 촌	구성비	증가율
1990	12880.3	19.51	2.41	53136.4	80.49	1.80
1995	14938.1	20.75	3.55	57057.4	79.25	1.17
2000	18771.9	24.18	3.82	58863.5	75.82	0.60
2005	22418.5	26.97	3.13	60701.4	73.03	0.67

출처: 베트남 통계청자료(2006) 토대로 필자 계산  
<http://www.gso.gov.vn/default.aspx?tabid=387&idmid=3&ItemID=4678>

우선, 베트남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주 추세는 〈표 4〉에서 나타난다. 베트남의 도시인구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한 증가세 속에서 인구 구성비가 19.51%에서 26.97%로 7.46% 증가한 반면, 농촌인구의 구성비는 1990년 80.49%에서 2005년 73.03%로 7.46% 감소하였다. 가장 최근인 2005년 도시인구는 약 2천242만 명으로 역대 구성비 중 최고인 약 27%에 육박하는 등 베트남 내 도시인구의 증가와 농촌인구의 감소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럼 과연 〈표 4〉에서 나타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주는 전술한 김현미의 주장대로 주로 남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베트남 내 최대 농촌지역인 남부 메콩델타 지역 성별 인구통계 〈표 5〉에서 나타난다.

(표 5) 메콩델타 지역 성별 인구 (단위: 천명)

연도 지역	1998			2000			2002			2004		
	남	여	격차	남	여	격차	남	여	격차	남	여	격차
전체	7850.4	8173.1	-322.7	8005.9	8338.8	-332.9	8186.9	8526.8	-339.9	8355.4	8720.7	-365.3
롱안	634.4	660.4	-26	652.0	678.3	-26.3	668.3	695.3	-27	688.6	711.9	-23.3
띠엔장	775.0	825.0	-50	785.8	837.2	-51.4	798.5	850.8	-52.3	816.3	865.2	-48.9
벤페	626.7	668.0	-41.3	631.5	673.9	-42.4	638.1	680.9	-42.8	653.3	691.5	-38.2
짜빈	477.4	481.8	-4.4	487.8	490.5	-2.7	499.7	502.6	-2.9	494.3	521.2	-26.9
빈롱	488.7	517.7	-29	493.8	523.9	-30.1	501.5	531.9	-30.4	508.0	536.9	-28.9
동탑	763.4	793.1	-29.7	774.1	804.1	-30	788.6	819.2	-30.6	800.1	839.3	-39.2
안장	1001.1	1031.4	-30.3	1021.7	1055.3	-42.6	1047.2	1081.6	-34.4	1066.8	1103.3	-36.5
끼엔장	731.7	748.6	-16.9	751.2	772.8	-21.6	771.9	794.0	-22.1	803.9	826.5	-22.6
끼엔터	882.2	914.2	-32	901.3	934.9	-33.6	916.9	951.1	-34.2	552.5	571.0	-18.5
허우장										384.2	396.8	-12.6
스꽝	569.7	599.1	-29.4	580.2	610.8	-30.6	599.8	631.4	-31.6	612.8	644.6	-31.8
빅리에우	355.6	376.5	-20.9	364.5	379.8	-15.3	376.2	392.1	-15.9	382.4	404.0	-21.6
까미우	544.5	557.3	-12.8	562.0	577.3	-15.3	580.2	595.9	-15.7	592.2	608.4	-16.2

출처: 출처: 베트남 통계청자료(2006) 토대로 필자 계산  
<http://www.gso.gov.vn/default.aspx?tabid=387&idmid=3&ItemID=4667>

메콩델타 지역 전체 성별 인구 <표 5>를 보면 1998년 남성이 여성보다 32만2천7백 명 적었던 성별 불균형이 2004년에는 36만5천3백 명으로 점차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메콩델타 지역 내 대부분의 성에서도 역시 1998년부터 성별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짜빈성의 경우, 2002년 남성이 여성보다 2천9백 명이 적은 상태였으나 불과 2년 후, 2004년에는 그보다 2만4천명 급증한 2만4천9백 명이 적은 것으로 성별 불균형이 급격히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별 불균형의 급격한 심화현상은 단순한 산아문제에 기인한 것

이 아닌, 이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표 5>는 <표 4>와 같이 베트남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주가 주로 남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성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술한 베트남 농촌지역 남성의 도시로의 이주로 인한 농촌지역 내 성별 불균형 현상은 결국, 농촌지역 여성 중 상당수가 국제결혼을 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3. 남부지역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급증

베트남 남부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 급증세는 하노이 주재 한국 대사관과 호찌민시 주재 한국 총영사관<sup>5)</sup>의 베트남 여성에 대한 결혼비자 발급 현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표 6> 베트남 주재 한국 공관의 베트남 여성에 대한 결혼비자 발급 현황

발급처 연도	호찌민시 주재 한국 영사관		하노이 주재 한국 대사관	
	결혼비자 발급 건수	구성비(%)	결혼비자 발급 건수	구성비(%)
2000	83	100	0	0
2001	104	100	0	0
2002	354	88.5	46	11.5
2003	1,436	90.0	166	10.0
2004	2,104	88.2	281	11.8
2005	3,853	84.3	720	15.7

출처: 하노이 주재 한국 대사관 및 호찌민시 주재 한국 총영사관

5) 베트남의 중부지역을 경계로 하노이 주재 한국 대사관은 중부이북 지역 거주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업무를 관장하고 호찌민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중부이남 지역 거주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업무를 관장한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결혼비자를 취득한 베트남 여성의 대다수는 베트남 남부지역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과 2001년, 두 해 동안 한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결혼비자를 취득한 베트남 여성은 100% 전원이 남부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베트남 남부지역출신 여성에 의하여 시작되었음을 알게 해 준다. 그 이후, 베트남의 북부지역 출신 여성에 대한 결혼비자 발급 건수 역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남부지역 출신 여성에 대한 결혼비자 발급 건수와 격차는 2000년 83건에서 2005년 3,133건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베트남주재 한국 공관의 베트남 남부지역 출신 여성에 대한 결혼비자 발급 건수는 전체 베트남 여성에 대한 결혼비자 발급 건수의 대부분인 약 84%~100%의 구성비를 점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발급 건수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공관의 베트남 여성에 대한 결혼비자 발급이 베트남 남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원인은 최근 베트남 내 최대 농촌지역인 남부 메콩델타 지역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메콩델타 지역 13개성 내 까마우(Ca Mau)성에서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약 9개월 동안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1,5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하루평균 5건 이상 발생(2 nam:them 32,000 phu nu ~)하는 급증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대만 남성과의 결혼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던 켄터(Can Tho)성에서는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2000년 한해 2건에서 2005년 한해 379건으로 급증하였으며(Lay chong Han Quoc ~) 빈롱(Vinh Long)성에서는 2006년 4월부터 7월 19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이 지역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112건으로 예전 연평균 10~20건 발생(Ha con sot lay ~)에 비해 뚜렷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메콩델타 지역에서는 최근 이 지역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 급증현상을 반영하듯 한 가구에 두세 명의 친자매 혹은 고모와 조카 모두가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Dua nhau lay chong ~).

따라서 <표 6>을 분석하여 보면, 첫째,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다수는 베트남 남부지역 출신 여성이며, 둘째, 향후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하는 베트남 여성의 대다수 역시 베트남 남부지역 출신이 차지하게 될 것이며, 셋째, 이들 베트남 남부지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중 상당수는 메콩델타 지역 출신 여성이 차지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대부분 베트남 남부지역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은 크게 경제적 원인과 문화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원인은 과거 베트남 남부 여성의 대만 남성과의 결혼 급증세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남부 여성이 빈곤탈출, 가족부양 등의 경제적 이유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베트남 남부지역 출신으로 보이는 대다수의 한국 내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가 빈곤가정 출신자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 근거는 첫째, 한국 내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에서의 소득수준 조사에서 베트남 출신 여성의 소득수준이 전체 외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중 가장 낮게 나타난 점, 둘째, 한국 내 거주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이 한국 내 전체 출신 국가별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에 비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제적 적응이 여타 국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우수한 점(설동훈·윤홍식, 2005), 셋째, 한국 내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과반수인 55.4%가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난 점<sup>6)</sup>, 넷째,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약 70%가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는 점,

다섯째, 한국 내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별 본국에서의 취업여부에서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미취업률이 31.8%로 여성 결혼이민자 중 가장 높은 점, 여섯째, 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도 전직업이 베트남 내 저소득층인 공장노동자, 농어민이 각각 39.1%, 30.4%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 점(설동훈 외, 2005: 76, 85)이다. 한편,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 내 켄터성 사법처의 2005년 조사에서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전체 켄터성 출신 베트남 여성 중 79%가 빈곤 가정 출신이며, 67%는 현재 친정 가족부양을 하고 있는 것(Lay chong Han Quoc ~)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원인은 베트남 북부인과 남부인의 상호 역사, 환경, 관습, 기질 등 문화 차이에 기인한 국제결혼을 수용하는 개방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의 북부는 동아시아 문화의 영향으로 가부장적인데 반해 남부는 동남아시아적 특성인 양변적(兩邊的) 면모가 현저한데(최병욱, 2003: 169), 북부인은 비교적 강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혼사에 있어서 이민족간의 결혼에 배타적이고 배우자의 연령, 가문 등의 조건을 따지는 데 반해 유교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베트남의 남부인은 이민족과의 결혼에 관대하고 개방적 성향이 강하다. 이는 오래전부터 베트남 남부가 크메르(Khmer)족에 의한 인도문화, 중국화교에 의한 중국문화, 찰(Cham)족에 의한 이슬람문화 등의 유입과 19세기 후반의 프랑스, 미국 등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매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었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주민들은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하며 외부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에 잘 적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Phan An, 2004: 16). 따라서 베트남 북부의 전통적 여성상은

6) 여성 결혼이민자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결혼을 한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한국에서 살기 위하여"나 "본국의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란 경제적 인 이유가 69%나 되었다(설동훈 외, 2005: 75).

남편 또는 남편 집안에 대해 상당히 종속적이며 지위도 극히 낮았던 반면, 남부의 여성상은 자립적 여성상으로, 북, 중부와는 달리 촌락공동체에의 의존도가 낮은 상황에서 활발한 교역활동 참여로 인한 자유로운 남성접촉이 가능하였다. 베트남 남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중국인, 크메르인 등 이민족과의 결혼이 이루어져 왔으며, 종종 여성들이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일종의 '남성구매'로까지도 해석될 수 있는 적극적 재혼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최병욱, 2003: 196). 이는 남부지역 여성이 북, 중부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개방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강한 개방성은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베트남 남부지역 여성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베트남 남부 메콩델타 지역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 급증세의 주원인은 첫째, 이 지역에 중매를 통해 신부대를 지불하고 결혼하는 전통적 결혼풍속<sup>7)</sup>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에 개입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의 시스템에 대한 적응이 용이하고, 둘째, 전통적으로 공동체의식이 희박<sup>8)</sup>하기 때문에 주위의 평판에 대한 의식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셋째, 외부세계와 문화에 대한 개방성향<sup>9)</sup>이 베트남 내 여타지역보다 강하

7) 메콩델타 지역의 전통적인 결혼은 대부분 중매로 이루어지고 신부대 지불을 포함한다(하순, 2000: 89).

8) 메콩델타의 촌락들은 한데 모여 응집되어 있지 않고 수로를 따라 띄엄 띄엄 산재해 있어 사회, 경제 및 종교적 활동들이 북부처럼 전체 촌락단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분산된 정착유형 때문에 촌락의 사회조직이 느슨해지고 촌락민간의 결속력은 약화되었다(하순, 2000: 100).

9) 메콩델타의 강을 통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로에 의한 교통체계는 그 지역민들로 하여금 오래전부터 외부세계와 접촉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1670년대 메콩델타는 뱃길을 통하여 이미 여러 국적의 사람들에 의해 상업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개방된 사회체제로 발전되었으며, 프랑스 식민지 지배를 겪으면서 메콩델타 촌락의 개방성향은 더욱 가속화 되어 농민들로 하여금 외부세계에 대한 노출을 더욱 심화시켰다. 식민지 경제는 메콩델타를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통합시키면서 본래의 델타 사람들의

기 때문에 이민족과의 결혼문제에 있어서도 여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관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4. 대만 남성과의 결혼계약

베트남 여성의 대만 남성과의 결혼급증 현상은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급증 현상보다 이미 십여 년 전에 발생하였는데, 1994년 530건에서 해마다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13,863건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2002년까지 매년 12,000건 이상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1991년 베트남이 자본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자마자 대만의 중소기업들이 대규모로 베트남에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대만자본의 진출은 동시에 베트남 여성을 '현지채'로 맞이하는 대만인들의 수를 증가시켰고, 베트남 여성의 대만으로의 조직적인 결혼 이주를 추동시켰다. 더구나 경제적 전구화의 전개에 따른 대만기업의 해외직접투자증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생존이 어려워지고 결국, 경쟁에서 밀려나 결혼시장에서도 가치를 발현하지 못하는 대만 남성 노동자, 농민들의 일부가 대만과 베트남 현지중개업자들이 개발한 중개시스템에 의해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가능하게 되면서 베트남 여성의 대만 남성과의 결혼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는데, 2000년에는 그 수가 14만 명에 이르렀다(김현미, 2006: 20).

베트남 여성의 대만 남성과의 결혼급증의 원인은 전술한 대만과 베트남 양국간 경제교류, 대만 내 결혼시장의 교란 외에도 베트남 내 일부 화교들이 결혼중개업에 뛰어 들었기 때문이다. 1986년 베트남

---

개방된 삶의 체계를 보다 넓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다(하순, 2000: 100-102).

남의 도이머이 정책의 실시 이후, 베트남 내 화교들은 대만인들을 포함한 해외거주 중국인들과 범중국인 종족성을 형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베트남에 경제적 투자를 용이하게 해주는 교량역할을 맡기 시작하면서(Mac Duong, 1994: 48) 베트남 여성의 대만 남성과의 결혼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2004년 베트남 남부 사회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결혼중개업체는 대만 남성의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어와 베트남어에 능통한 베트남 내 화교들에 의해 처음으로 조직, 운영되었는데, 결혼 한 건당 미화 약 1,780~4,800달러의 고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기업, 조직, 개인 등의 다양한 형태로 양산되었다. 대만 남성과 결혼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의 과반수인 63.5%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han An, 2004: 48). 그러나 대부분의 결혼중개업체는 무허가업체로 가정집 등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등, 음성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중개 활동에 대한 정확한 업체 수의 파악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만 남성과 베트남 여성간의 국제결혼의 과정에서 개발된 결혼중개 시스템은 현재 한국 결혼중개업체의 중개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대만 남성의 베트남 방문기간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이며 그 기간 동안 대만 남성은 수십에서 수백 명의 베트남 여성과의 집단맞선, 결혼식, 혼인신고 등을 모두 치르게 된다. 그러나 베트남 여성의 대만 남성과의 결혼이 급증에 따른 결혼중개업체의 양산과 경쟁과열로 인하여 대만 남성 한명이 수십 명의 여성과 집단맞선을 보고, 혼전 동침을 하고 특히, 일부 베트남 여성들이 대만 남성 배우자로부터 성매매, 인신매매,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베트남 여성의 대만 남성과의 결혼에 대한 현지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지여론은 결혼중

개업체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베트남 여성의 대만 남성과의 결혼을, 여성을 물건처럼 팔고 사는 매매혼이라 비난하고 이를 주선하는 결혼중개업체를 ‘꼬(co:아내매업소)’로, 집단맞선 주요 발생지역을 ‘찌버(cho vo:아내시장)’라 부르고 있다.

베트남 여성의 대만 남성과의 결혼에 대한 우려와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은 베트남 여성의 대만 남성과의 결혼을 주저하게 하였다. 더구나, 대만정부의 2001년 외국인에 대한 대만국적 취득요건 강화조치<sup>10)</sup>로 대만국적 취득이 어려워지고, 2005년 2월, 베트남정부의 국제결혼관리 강화조치에 의하여 베트남 여성의 대만 남성과의 혼인신고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대만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은 2003년 11,358에서 2004년 9,927건, 2005년 3,212건으로 급감하고 있다(대만경제문화판사처, 2006). 현재, 대만정부에서는 자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시 우선, 베트남 주재 대만경제문화판사처(臺灣經濟文化辦事處)에서 혼인신고를 심사받고 접수하게 한 후, 관할 베트남 사법부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결혼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혼인신고 접수시 남녀 배우자간 연령차와 상호 의사소통 능력여부에 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서 베트남 여성의 대만 남성과의 결혼은 예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sup>11)</sup>.

반면, 베트남 내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혼인신고는 우선, 한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 신고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베트남에 가져와 단지, 베트남 내에서 인정받는 절차만을 거치면 되는 등, 혼인신고 절차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상에서 상대적으로

---

10) 2001년 2월 신증설(新增設)국적법시행세칙 제5조, 대만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결혼 후 대만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하고 은행 잔고증명 등을 통해 경제력을 증명하여야한다(설동훈 외, 2005: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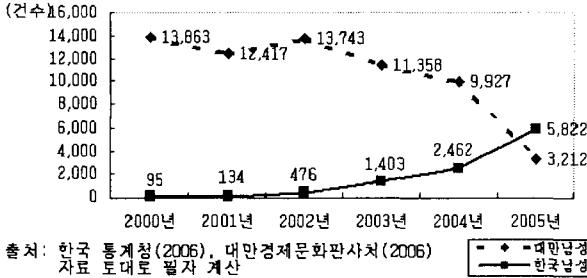
11) 베트남 남부 사회과학원 판안(Phan An) 부교수와의 면담 2006/5/3.

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대만 남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베트남 여성은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한 대만 남성과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일부 베트남 여성의 피해사례와 그에 대한 베트남 내 여론의 악화 그리고 대만과 베트남 양국 정부의 결혼심사강화, 국적취득규정 강화 등의 조치는 베트남 여성의 대만 남성과의 결혼을 급감시킨 반면,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급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다음 페이지 <그림 1>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은 대만정부의 국적취득요건이 강화된 2001년 134명에서 급증하기 시작하여, 베트남정부의 베트남 여성과 대만 남성의 혼인신고심사가 강화된 2005년에는 5,822명으로 4년간 약 44배의 증가수치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급증 현상은 베트남 여성이 국제결혼의 대상으로 삼았던 대만 남성과의 결혼에 제약이 따르자 그 대안으로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베트남의 가장 가난한 농촌지역 중 하나인 메콩델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급증 현상은 베트남의 국제결혼시장에서 한국 남성이 대만 남성의 대안이 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일례로 메콩델타 지역에서 대만 남성과 국제결혼이 가장 빈번한 지역이었던 켄터(Can Tho)성의 경우, 동지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2000년 2건에서 2005년 379건으로 급증한 반면, 대만 남성과의 결혼은 2000년 2,744건에서 2004년 1,215건으로 급감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 6개월간 결혼 건수는 561건에 그쳤다.

(그림 1) 베트남여성의 대만남성, 한국남성과의 결혼 추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이 지역 내 일부 마을은 마을 내 가구의 대다수가 대만 남성을 사위로 맞아들임에 따라 인근지역주민들로부터 '대만마을(xa Dai Loan)'로 불리었으나 최근에는 마을 내 가구의 대다수가 한국 남성을 사위로 맞아들임에 따라 '한국마을(xa Han Quoc)'로 새롭게 불리고 있다.

### 5. 한류의 확산

베트남에서의 한류도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베트남 내 한류는 한국 TV드라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는데 이는 베트남 내 한류가 1997년부터 시작된 한국 TV드라마의 방송을 통하여 형성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한국 TV드라마에 의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베트남 내에서 소개된 한국 드라마는 총 100여 편에 이르며 현재까지 베트남의 각 TV방송사에서 꾸준히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 내 한류가 한국 TV드라마의 방영에 의해 시작되고, 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은 1986년 도이머이 이후, TV수상기의

보급이 확대된 상황에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으로 증대되고 있는 베트남인들의 소비욕구와 부유한 삶에 대한 동경을 한국 드라마가 대리만족 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김현재, 2003). 유사한 맥락에서 킬본(Kilborn)은 사람들이 드라마 장르를 시청하는 이유가 등장인물과의 동일시나 감정이입 등의 카타르시스적 기능과 도피의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기 때문(Kilborn, 1992: 75-84)이라고 조사를 통하여 밝혀낸 바 있다.

베트남 내 한류는 특히, 베트남 젊은 여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화장, 헤어스타일, 의상 등 패션의 모방과 한류상품의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영향에 따른 단순한 모방과 한류상품에 대한 소비는 주로 베트남 도회지의 젊은 여성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으로 농촌지역 젊은 여성에게는 그와 다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베트남 내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신문, 잡지 등 인쇄물의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TV, 라디오가 거의 유일한 정보 습득의 수단이 되고 있는 까닭에 농촌지역의 젊은 여성들은 한국인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거의 전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얻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 여성의 한국과 한국 남성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형성에 대한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의 농촌지역여성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과 같이 아름답고 부유한 나라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며, 이러한 환상은 일부 농촌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가기위한 한 방법으로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의 농촌지역인 임실군으로 이주한 베트남 여성은 한국에 대한 동경 특히, 한류에 대한 호감 때문에 한국으로 시집 갈 결심을 했으며, 드라마를 통해 본 한국생활은 아니지만 모국인 베트남에 비해 농기계도 좋고 상대적으로 좋다고

말한다(한건수, 2006: 211).

TV드라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베트남 내 한류가 베트남 여성에게 가져다주는 환상은 베트남의 국제결혼 시장에서 한국 남성이 여타 외국남성보다 더 우세한 경쟁력을 갖게 함으로써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에 있어서 주요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여성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의 가장 주된 결혼 이유는 경제적 이유 외에 한국 드라마 시청을 통해 베트남인과 유사한 정서와 가족생활상을 갖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막연한 호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Cu 64 phu nu~).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급증에 한류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베트남 여성연합회와 현지 언론은 일부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갖게 되는 한국 남성과 결혼에 대한 환상에 대해 경고하고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시도하는 대다수의 한국 남성들은 한국 내 결혼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빈곤 계층의 사람들로서 한국드라마 속에 등장하여 화려한 생활을 누리는 남성상과는 현실적으로 다르다(Phan buon co dau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술한 베트남 여성연합회와 현지 언론의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 미치는 한류의 영향에 대한 우려와 대처는 베트남의 시각에서 볼 때, 한류가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 확산에 직접적인 배경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는 베트남 내 한류가 실제로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 증가에 직접적인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베트남의 사회단체와 언론이 인정한 것으로 베트남 내 한류 확산의 정도와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V. 결론

'도이 머이(Doi Moi)' 이전까지 통일베트남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매우 드문 현상이었다. 그러나 개방과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시작한 도이 머이 이후 개방된 베트남에서는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의 최대도시인 호찌민시에서만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총 39,325명의 베트남인이 52개국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 남성과 결혼을 하였다. 특히, 베트남 여성의 외국 남성과의 결혼은 이 지역 전체 베트남인의 국제결혼 건수 중 92%이상의 구성비를 차지함으로써 지난 1990년대 베트남인의 국제결혼이 거의 베트남 여성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Phan An, 2004: 16; TP. HCM: Hon 67% phu nu ~). 베트남 여성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2003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약 27개월 동안에도 총 31,800명 이상의 베트남 여성이 국제결혼을 하는 등,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세계적인 규모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무경계(borderless)화의 영향이 오늘날 베트남에도 확실히 미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 역시, 2000년 95건에서 5년 후인 2005년에는 5,822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 여성은 현재,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 대상으로서 중국 여성 다음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남성과의 결혼 증가율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남성의 중국 출신 여성 배우자 대부분이 중국교포인 조선족인 점을 감안하면 베트남 여성은 실질적인 이민족 여성으로서 한국사회에 가장 많이 이주,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농림어업 종사자 남성 세 명중 한 명꼴로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여성은 농림어업종사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대상자로서 그 구성비가 전체 외국출신 여성 배우자의 과

반수를 넘고 있다.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 증가는 도이 머이 이후, 베트남과 한국 양국간 인적교류가 경제, 문화, 교육, 관광 등 각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첫째, 십여 년 전부터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 최대 대상이 되고 있는 대만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결혼중개업체의 개입 등으로 인한 현지여론의 악화, 최근 베트남과 대만 양국정부의 결혼심사 강화조치 등에 의하여 여의치 않게 되자, 베트남 내 국제결혼시장에서는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새로운 대안이 되었다. 즉, 한국 남성이 대만 남성을 대체하는 베트남 여성의 새로운 국제결혼 대상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베트남 내 최대 농촌지역으로 1990년대부터 베트남 내 국제결혼 최대발생 지역이자 대만 남성과의 국제결혼 최대발생 지역인 메콩델타 지역의 여성들이 최근, 대만 남성과의 국제결혼 이유와 동일한 빈곤탈출, 가족부양 등 경제적 이유로 대만 남성의 대체 대상으로 부상한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 내 결혼시장의 교란으로 배우자를 외국에서 구하려고 하는 한국 남성의 수요증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증가 등과 맞물리면서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 증가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베트남 내 한류의 주요 매개체인 한국 TV드라마가 교통, 통신,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TV를 주요 정보매체로 삼고 있는 베트남 농촌지역, 특히, 메콩델타 지역 여성들이 한국과 한국 남성에 대한 환상과 호감을 갖게 함으로써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대상으로서 여타 국가 남성에 비해 경쟁력을 갖게 하고 결국, 한국 남성의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용이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원인을 통하여 첫째, 한국 남성과 결혼한 또는 결혼하고자 하는 베트남 출신 여성 대다수가 베트남의 남부, 그 중에서도 농촌지역인 메콩델타 지역 출신이며, 둘째, 학력이 낮다는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같은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귀화·복지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적응에 있어 대다수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는 농촌지역출신이므로 한국 내 농촌지역에서의 사회적 적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으로 이들의 농촌으로의 이주를 권장하고, 둘째, 낮은 학력에 맞는 별도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며, 셋째, 인구학적 측면에서,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전체 국가별 여성 결혼이민자 중 가장 낮기 때문에 가임 확률이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하여 노령화와 인구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으로의 이들의 이주가 한국 내 농촌사회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넷째,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하는 대다수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적응을 높이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 및 노동시장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현용·김정선·김재원·소라미. 2006. 『국제결혼중개시스템: 베트남·필리핀 현지 실태조사』 서울: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

- 류학』 39권 1호, 159-193.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호, 10-37.
- 김현재. 2003. "한물간 한국 TV드라마." 『월간조선』 3월호, 212.
- 법무부. 2006. 『2005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 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설동훈 · 윤홍식. 2005. "국내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 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대구. 10월.
- 손승호. 2005.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경제적 효과와 향후과제" 『수은 해외경제』 4월호: 24-39.
- 이태욱. 2006.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과 사회적 지지망 연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논문.
- 최병욱. 2003. "19세기 남부베트남의 여성상: '음탕함'과 그 함의." 『동남아시아연구』 13권 1호, 165-198.
- 하 민 타잉(Ha Minh Thanh). 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석사논문.
- 하순. 2000. "메콩델타-역동적인 문화와 역사의 세계." 『국제지역연구』 4권 2호, 81-112.
- 한국 통계청. 2006. 『인구동태 - 외국인과의 혼인·이혼통계』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권 1호, 195-219.
- Kilborn, R. 1992. *Television Soaps*. London: Batsford.
- Mac Duong. 1994. *Xa hoi nguoi Hoa* (중국인 사회). NXB. Khoa hoc xa hoi.
- Phan An. 2004. "Nghiên cứu hôn nhân giữa người Việt Nam với người Đại Loan." (베트남인의 대만인과의 혼인연구) Ho Chi Minh: Vien Khoa hoc Xa hoi vung Nam bo.
- Tong Cuc Thong Ke. 2006. "Dan so va Lao dong."  
<http://www.gso.gov.vn/default.aspx?tabid=387&idmid=3&ItemID>

=4678 (검색일: 2006.12.25).

Tran Thi Kim Xuyen, 2004. "Tim hieu thuc trang phu nu ket hon voi nguoi Dai Loan." (베트남 여성의 대만 남성과의 결혼실상 고찰) Ho Chi Minh: Vien Khoa hoc Xa hoi vung Nam bo.

(신문기사)

"Cu 64 phu nu lay chong nguoi ngoai quoc thi co toi 60 nguoi di lam dau o xu NamHan." (64명의 국제결혼여성 중 60명이 한국 남성과 결혼). *Bao Saigon*, 2006/5/5.

"Dua nhau lay chong Han Quoc." (한국 남성과 결혼 경쟁). *Thanh Nien*, 2006/2/21.

"Ha con sot lay chong Han Quoc." (한국 남성과의 결혼 붐). *Lao Dong*, 2006/10/16.

"Lay chong Han Quoc, lan song moi o Can Tho." (한국 남성과의 결혼, 권터의 新유행). *Tien Phong*, 2006/2/18.

"Phan buon co dau moi gioi xu Han."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시집 간 베트남신부의 슬픔). *VietNamNet*, 2004/11/4.

<http://vietnamnet.vn/xahoi/doesong/2004/11/342561/>(검색일: 2006.11.10).

"Thu nhap "giau"-ngheo" o VN chenh nhau gan 14 lan." (베트남내 빈 부간 약 14배의 수입격차). *VietNamNet*, 2004/5/6.

"TP, HCM: Hon 67% phu nu lay chong nuoc ngoai vi dong co kinh te." (호찌민시, 국제결혼여성의 67%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외국인 남성 선택). *VietNamNet*, 2003/6/8.

<http://www.vnn.vn/xahoi/2003/6/14785/> (검색일: 2006.11.10).

"2 nam: them 32,000 phu nu VN lay chong nuoc ngoai." (2년간 국제결혼여성 32,000명 증가). *Tien Phong*, 2006/6/11.

<http://www.tienphongonline.com.vn/Tianyong>(검색일: 2006.6.20), (1/10 Bar).

"90% dau Viet o Dai Loan chua duoc nhap quoc tich." (대만내 베트남 신부 90%가 아직 국적취득 못해) *VietNamNet*, 2005/5/28.

<http://www.vnn.vn/xahoi/doesong/2005/05/442429/>(검색일: 2006.11.10).

(자료)

대만경제문화관사처. 2006. “越籍配偶申辦結婚面談通過經本處核發  
「單身證明公函」人數統計表.”

베트남 하노이 주재 한국대사관. 2006. “베트남 여성에 대한 결혼비자  
발급건수.”

베트남 호찌민시 주재 한국 총영사관. 2006. “베트남 여성에 대한 결혼  
비자발급건수.”

(면담)

Phan An, 2006/5/3. 베트남 남부 사회과학원 부교수.

**ABSTRACT**

---

Cross-border marriages between Vietnamese women  
and Korean men:  
The reality and problems(A view from Vietnam)

---

**KIM Hyun Jae**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Asian Business, Youngsan University

This paper is going to cover female marriage immigrants from Vietnam, whose number is soared from the early 2000.

In order to recognize their demands for social and economic adjustments, which are caused by the increasing number of Vietnamese girls in Korea in recent days, it is required to analyze the reasons of their marriage to Korean men.

This paper will dissect the reasons as following: First, Vietnamese women have replaced Taiwanese men with Korean men as a spouse: Second, women from Mekong Delta have married Korean men increasingly in recent days: Third, Vietnamese women have had fantasy and penchant for Korean men due to Korean wave in Vietnam. From the facts that most of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s are from the southern part of Vietnam and that they are low-educated, this paper will suggest that they should move to the rural areas. In addition, it will present welfare policies suitable for them, such as developing Korean language program for the low-educated, and subsidy and labour law to help their economic adjustment.

**Key Words** : Cross-border marriages, Marriage immigrants,  
Vietnamese women, Mekong Delta.